

에 매화2리[지금의 해군부대 자리]에 설립된 학교로서, 1940년 1월에 제1회 졸업생 30여 명을 배출하였고, 1944년에는 5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어 울진공립여자실천학교가 되었다.

5) 울진공립여자실천학교지(蔚珍公立女子實踐學校地)

초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여 2년간 양잠, 재봉 등의 과정을 이수하는 학교로서 1944년 초에 매화2리에 설립되었고 1945년 초에 울진읍으로 이전되었다.

6) 울진기미독립만세기념탑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에 있는 일제강점기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탑이다. 울진군민들이 1991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울진기미독립만세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탑을 세웠다. 전체 2,462평의 부지에 대리석으로 제작된 사다리꼴 형태의 단을 만들고, 위에 피라미드 형태의 스테인리스 철탑을 세웠으며, 철탑 내부 가운데에 검은색 화강암으로 만든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앞쪽에는 향로석이 있다. 단의 앞면 가운데에는 2단의 계단이 있고, 계단 왼쪽과 오른쪽 측면에는 만세운동을 형상화한 부조가 있다.

탑의 높이는 15m이며, 기념비의 높이는 3.3m이며 비의 앞면에 ‘울진기미만세기념탑(蔚珍己未萬歲記念塔)’이라 새겼다. 기념비 뒤에는 직사각형의 검은색 화강암으로 제작된 석판을 세우고 탑을 세운 취지문 및 건립에 참여한 인사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제12절 신흥1리(新興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마을 앞으로 소하천(小河川)이 흐르고 7번 국도를 건너 오산1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서쪽은 백호등(白虎嶺)을 넘어 기양1리와 인접하며, 남쪽은 이울동(以蔚洞)과 접하고, 북쪽은 1km 거리에 면 소재지인 매화1리가 있다. 2006년에 마을회관이 신축되어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대잠(大岑) 혹은 대점

1520년경에 순흥 안씨(順興安氏)인 언문(彦文)이 이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마을이 높

은 곳에 있다 하여 대잠(大岑)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2) 물개월(沒開月)[사곡: 沙谷]

1620년경에 인동 장씨(仁同張氏)와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마을 앞의 계곡(溪谷)이 뜨고 지는 달 모양과 같다 하여 물개월(沒開月)이라 하였다. 그 후 1880년경에 마을 앞 백사장(白沙場)에 망월(望月)이 유난히 밝게 비치므로 사곡(沙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3. 가구 분포

총 50세대가 거주하며 인동 장씨(仁同張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등이 세거한다.

4. 마을의 특징

1) 대점성황당(城隍堂)

400년~500년쯤 된 느티나무[거목: 巨木]를 성황신으로 모시고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엄선된 제관이 마을의 무병(無病)과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성황제를 올리고 있다.

2) 배나무터

옛날에 돌배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삼복(三伏)더위에도 시원하여 마을 사람들이 점심때 이곳에 모여들었고 또 조선시대에 고을 원님이 유림(儒林)들과 이곳에서 더위를 식히며 시(詩)를 읊었다 한다.

3) 사곡성황당(城隍堂)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바위를 성황신으로 모시고 대잠동과 같이 정성을 들여 동제를 지내고 있다.

4) 원등이

옛날에 고을 원님이 이 등선에서 쉬어갔다 하여 원등이라 하였다 한다.

5) 송암정

우거진 소나무 밑에 병풍(屏風)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는 곳으로 원님이 이곳을 지날 때

마다 쉬어갔다 한다.

6) 암자바위

사곡동 뒷산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에서 불공을 드렸다 하여 암자바위라 한다. 지금도 간혹 자식 없는 여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한다.

제13절 신흥2리(新興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에는 현종산 기슭에서 발원(發源)되는 소하천이 동해로 흐르고 산 너머에는 덕신2리가 있다. 서쪽은 중첩된 산이 기양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기성면과 경계를 하고 북쪽은 신흥1리 대잠동과 인접하고 있다. 마을회관이 2002년에 신축되어 현재 경로당과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북수골(北水谷)

옛날에 이 마을을 개척하여 살던 사람이 부자(富者)가 되어 오래 살도록 하는 뜻에서 부수동이라 하였다 하며 그 후 인동 장씨(仁同張氏)인 중엽(重燁)이라는 선비가 입주하면서 마을 앞의 냇물이 북쪽으로 흐른다고 하여 북수골(北水谷)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2) 이울(李蔚·以蔚)

1627년경에 평창군수(平昌郡守)를 지낸 이대인(李大仁)이라는 선비가 자기의 성(姓)을 따서 이울(李蔚)이라 하였고 또 울진군과 평해군의 경계가 이 마을의 남단(南端)이므로 이 마을부터 울진(蔚珍)이라 하여 이울(以蔚)이라 전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57세대가 거주하며 인동 장씨(仁同張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광산 노씨(光山盧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